

일본 대학의 국제화

오대영 | 중앙일보 국제부장

외국 대학의 국제화하면 가장 먼저 일본을 떠올리게 된다. 일본 특과원(2001년 1월~2004년 6월)으로서 근무했기 때문에 일본 대학을 잘 안다는 이유도 있지만, 일본 대학들이 우리 대학들과 비슷한 점이 많아 비교해볼 점이 많다는 이유도 있다. 마침 일본에서 근무할 당시 일본 대학들은 국립대 법인화(2004년)를 비롯해 개혁기에 돌입하고 있었다. 대학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이를 지켜보고, 일본 대학들을 취재하면서 빠르게 달라지는 일본 대학들의 국제화 현황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기회가 많았다.

섬나라인 일본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폐쇄주의다. 일본 대학들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일찌감치 경제 선진국이 됐지만 일본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은 그리 많지 않아 1983년만 해도 1만여 명에 불과했다. 이 때 일본 대학의 국제화를 외치고 나온 곳이 일본 정부였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 유학생을 1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유학생 장학금 지급, 유학생 비자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20년 뒤인 2003년에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양적 팽창에만 몰두한 나머지 부적격 학생들까지 마구 들여와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일본 학생들을 모집하지 못한 일부 전문대들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외국 유학생만 마구잡이로 모집해 놓은 뒤 관

리를 소홀히 한 탓에 일부 중국 유학생들이 학업은 뒷전에 두고 불법 취업으로 돈벌이에 나섰다. 적발됐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일본 정부는 2004년부터 질적 관리에 나서 중국과 동남아 출신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했다.

그래도 일본 정부의 이런 노력이 가져온 가장 큰 소득은 일본 대학들이 국제화에 눈을 떴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일본 남부지역에 있는 규슈(九州) 오이타(大分)현의 벳부(別府)시에 있는 리쓰메이칸(立命館) 아시아·태평양 대학(APU)은 성공적인 모델로 꼽을 수 있다. 이 대학은 일본에서 근무할 때 일본의 성공적인 대학 개혁 성공 사례를 소개한 책을 읽다가 우연히 알게 됐다. 그 후 일본에 있을 때, 그리고 귀국한 후에도 세 차례 취재를 위해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APU대학은 간사이(關西)지역의 명문 사립대인 리쓰메이칸대학이 오이타현과 벳부시의 토지 기부 등의 지원을 받아 2000년 문을 연 대학이다. 제대로 된 국제대학을 만들겠다는 리쓰메이칸대와 궤를 같이 하는 대학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두 지방자치단체의 목표가 맞아떨어져 탄생한 것이다. 이 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설립 단계부터 정원의 절반을 아시아 중심 외국 학생으로 채우겠다는 목표 아래 설립됐다는 점이다. 2004년 5월 처음 취

재 갔을 때 만났던 당시 하야시 겐타로(林堅太郎) 부총장은 “일본이 아시아 최고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아시아 사람들과 협력해 아시아의 미래를 짚어질 젊은 인재들을 키우는 것이 학교 설립 취지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목표는 순조롭게 진행돼 2007년에는 학부와 대학원생 5,475명의 43%가 76개 국 출신 외국인이었다. 교수 200여 명 중 55%가 외국인이고, 몽테 카심 총장은 스리랑카 출신이다. 강의의 63%는 영어, 나머지는 일본어로 진행되고, 학생들은 영어와 일본어를 익히는 것은 물론 한국·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스페인어 등 6개국 언어 가운데 하나를 제2외국어로 택해야 한다. 이 대학에 들어서면 전 세계의 축소판이란 인상을 받는다. 학생마다 생김새와 복장, 언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학 측이 개교하기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이다. 개교 전에 모든 직원들이 주요 국가들의 고교를 찾아가 학교를 소개하고 학생들을 모집했다. 또 일본 주재 외국대사들과 기업인 등 278명으로 이뤄진 자문위원회(ACS)를 만들어 학교 경영에 참여토록 하는 등 외국과의 다양한 연결고리도 만들었다.

현재도 이런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상하이(上海)에 지부를 설치해 학생을 모집하는 한편 국제담당 직원 28명이 매년 아시아 등 30개 국의 고교를 방문한다. 그렇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쿄의 외국 대사관을 찾아가 학생을 추천받고 있다. 또한 세계의 150개 대학과 연구기관, 300여 개 고교와 협정도 맺고 있다. 이 덕분에 매년 봄, 가을로 외국 학생들이 찾아오고 있다. 외국 학생의 경쟁률은 2.5대 1 정도이다. 대학 측은 여러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주간 행사를 열고 있고, 매년 ‘국제물 서밋’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국제화 감각이 뛰어나게 된다. 2007년 취재를 갔을 때 만났던 여러 한국 학생들은 “입학 때는 일본어를 전혀 몰랐는데 지금은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본인이 노력만 하면 영어 이

외에도 중국어 등 다른 외국어도 충분히 익힐 수 있다.”, “여러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 기숙사에서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문화를 알게 된다.” 등등 자랑을 늘어놓았다. 일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노무라 증권에 입사하게 됐다는 한 일본 남학생은 “국제적인 감각이 생겼다.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학 측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국제적 감각을 익히게 된 것이 가장 큰 소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화 덕분에 이 학교는 후쿠오카(福岡)에서 열차로 두 시간 걸리는 곳에 있지만 취업률이 일본 대학 최상위 수준이다. 첫 졸업생을 배출한 2003년에 95%를 기록하던 이후로는 줄곧 98~99%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학생들의 취업률은 100%라고 한다. 취업하는 기업들 가운데는 닛산자동차 등 상장기업이 70%를 넘는다. 마쓰시타전공(주) 수석 입사, VISA인터내셔널 최연소 입사를 한 한국 학생도 있다.

지역의 협력, 학교 측의 다양한 노력도 큰 힘이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이 이 대학 졸업생들의 국제화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2007년에 만난 후쿠타니 마사노부(福谷正信) 취업부장은 “외국에 지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일본 문화를 모르는 현지인보다는 일본어와 영어에 능숙하고 일본 문화를 잘 이해하는 우리 대학 출신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대학에게는 세계적인 인재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힘이다. 졸업 후 귀국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학생들이 APU대학을 중심으로 연결돼 결국에는 APU대학이 아시아 인재의 네트워크 중심축이 된다는 것이다. 많은 외국학생들은 “대학에서 사귀 외국친구들이 졸업 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 대학은 이를 위해 귀국한 외국인 졸업생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PU대학 이외에도 2000년대 들어 외국대학과 교류하거나 외국학생 모집에 적극적인 일본 대학들이 크게 늘었

다. 주요 대상은 중국이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대학입학 인구 감소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학생 모집에 대비하는 한편 비약적으로 경제발전하는 중국에 인맥을 만들고 일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중국의 우수학생 유치,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서 근무할 중국인 인재 양성, 중국 기업과 대학의 연구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도쿄(東京)대, 교토(京都)대, 게이오(慶應)대, 와세다(早稻田)대 등 20개 이상의 국·사립대가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사무소를 개설했다. 도쿄공업대와 중국 칭화(淸華)대는 2004년 나노테크와 바이오 분야에서 공동 연구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아이치(愛知)대는 중국의 런민(人民) 및 난카이(南開)대와 화상회의의 시스템으로 쌍방향 강의를 실시했다.

일본 대학의 국제화 붐은 2004년 국립대 법인화 이후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국립대 법인화로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세계 유명대학들을 의식하게 되면서 국제화를 ‘대학의 의무’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필자는 2007년 11월 일본 포린 프레스 센터(foreign press center)의 초청으로 1주일간 방일해 도쿄대, 교토대, 게이오대, 와세다대, 리쓰메이칸대 등 명문 국·사립대의 총장이나 이사 등을 만날 수 있었다. 그 때 이들의 국제화 의식이 상당히 고차원적인 것을 보고는 매우 놀랐다.

“법인화 이후 달라진 점은 첫째 국제화다. 둘째는 사회와의 연결이다. 도쿄대는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 ‘열린 대학’이 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대학이 사회의 보호를 받았지만, 이제는 대학이 사회와 세계를 지켜야 한다.”는 오카무라 사다노리(岡村定矩) 도쿄대 경영담당 이사의 말은 매우 의미심장했다. 대학이 작게는 일본 사회, 크게는 국제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이제 일본의 대학이 아니라 세계의 대학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뜻했다. 비슷한 말을 여러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

고미야마 히로시(小宮山宏) 도쿄대 총장은 국립대 개혁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는 취임 후 ‘과제(課題) 선진국 일본’이란 용어를 자주 써왔다. 그는 이에 대해 “일본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 빨리 에너지·환경·고령

화·쓰레기·소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일본이 먼저 이를 잘 해결하면, 세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선 대학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 ‘과제 선진국 일본’의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 대학의 책임을 강조한 말이었다.

도쿄대는 2007년 개교 130주년을 맞아 교육·재무 등 7개 항목에서 총 44개의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한 ‘도쿄대 액션 플랜(Action Plan) 2007’을 발표했다. 도쿄대를 세계적인 고등교육과 연구의 핵심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안이었다. 고미야마 총장은 특히 국제화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대학이 세계 속에 열린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선 탄탄한 국제화 인프라를 만들고 싶다. 영어로 공부하는 대학, 영어로 움직이는 병원, 초·중등학교의 국제화 등 세 가지다. 어떻게든 우수한 외국 학생과 연구원을 가족과 함께 초빙하고 싶다”고 말했다. 히라오 기미히코(平尾公彦) 도쿄대 교육 및 국제담당 부학장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제화는 대학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250만 명의 학생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연간 20%씩 늘어난다. 이들 중 우수한 학생을 많이 유치하는 대학이 성공한다.”는 것이다. 현재 도쿄대 학부·대학원생 약 2만8천 명 가운데 외국학생은 2천3백 명으로 10%가 안된다. 빠른 시간 내에 이를 20%까지는 늘리는 것이 도쿄대의 목표다.

시라이 가쓰히코(白井克彦) 와세다대 총장은 국제화를 제1목표로 정했다. 와세다는 2007년 10월 개교 125주년을 맞아 ‘제2의 건학’을 선포했다. ‘국제 인재 육성 대학, 사회 공헌 연구 대학, 아시아의 지식 공동 창출 대학’이 골자였다. 시라이 총장은 “국제화는 와세다의 목표다. 세계를 의식한 글로벌 감각을 가진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이유를 세계에 대한 공헌과 일본 사회 보호란 두 가지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세계 공헌’이란 측면에서 보면 “성숙화, 다양화, 세계화 등 사회의 근본 변화에 맞춰 대학을 개혁해야 한다. 환경, 안전보장 등 인류가 처한 문제들이 거대화되면서 개별 국가만의 힘

으로는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제는 여러 국가들이 서로의 가치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 그런 능력을 가진 학생을 키우기 위해선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 대학도 일본인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외국과의 교류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에 대한 공헌’ 차원에서는 “대학은 지역에 공헌하고, 국민과 함께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글로벌 시대에는 정부, 기업, 대학이 단결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몰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식 거점이자 창조성의 원류인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와세다대의 교육 방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2006년에는 이공학부와 연구과의 교육방식을 바꾼 이공학술원을 만들었는데, 영어교육이 대폭 강화됐다. 고도의 영어 능력 구사 목표, 영어 전문서와 논문 이해, 영어 프리젠테이션 실력 향상 등이 목표였다. 국제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인재를 키우자는 취지였다. 또한 빠른 시간 내에 외국인 유학생을 현재의 2,400명(전체 학생 57,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리고, 외국인 교수 비율도 10%에서 2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5,000명이 입주할 수 있는 기숙사도 준비하고 있다. 나아가 모든 학생이 토플 550점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갖추도록 하고, 와세다 출신으로 외국대학으로 유학 가는 일본학생을 현재의 1,000명 선에서 8,000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시라이 총장의 꿈은 와세다대가 아시아 지식의 중심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는 “아시아 대학과의 제휴를 강화하고, 아시아 지식의 거점 대학으로 발전할 계획이다. 아시아 사이버 대학도 구상하고 있다. 나아가 환경 등 국제 문제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거나 각국에서 활약할 인재를 배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명문 사립대인 게이오 대학 역시 외국학생 교환 프로그램, 유학생 학비 감면, 외국에서의 입시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대학의 국제화는 대학 혼자만의 힘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기업들도 적극 돕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세운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은 국립대 법인

화 등 운영 시스템의 근본 개혁, 대학의 질 보증과 향상을 위한 제도 개혁, 국제경쟁력 강화, 산학 제휴와 지적 재산권 전략 추진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에 만난 시미즈 기요시(清水潔)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장 은 바람직한 대학 상에 대해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고등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학별로 적합한 역할과 기능을 찾아 분화시키고, 세계에 통하는 대학과 지역 및 세계에 공헌하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얼마 전에는 도요타자동차·도쿄전력·후지필름 등 일본의 15개 대기업들이 120억 엔의 ‘도쿄대 신탁기금’을 만들어 도쿄대의 해외 유학생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해 화제가 됐다. 연구 협력에 이은 새로운 형태의 산·학 협동인 것이다. 원금은 개별 기업의 소유지만, 미쓰비시(三菱)UFJ은행이 기금을 주식과 부동산 개발 등으로 운용해 연 3.5%가량의 수익을 올려 도쿄대에 주는 방식이다. 도쿄대는 연간 3억 엔의 수익금을 받아 아시아 출신 유학생의 장학금으로 쓰게 된다. 기업들이 이같이 나선 것은 도쿄대가 돈이 없어 외국 명문대와의 해외 인재 유치 경쟁에서 뒤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버드대는 2006년 3조 엔의 기금을 운용해 약 4,000억 엔의 운용수익을 올렸다. 영국 케임브리지대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기부한 250억 엔의 기금 운용수익으로 매년 230명의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일본 대학들은 해외 진출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최근 APU대학과 게이오 대학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산유국인 UAE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기업 등의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두 대학이 UAE 교육당국과 교섭하고 있다는 것이다. APU는 중학교에서 대학원까지, 게이오대는 정보기술(IT) 대학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중동 국가들은 요즈음 교육 기관을 세우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석유 기반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

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대표적인 것이 사우디아라비아가 125억 달러(약 11조5,000억 원)를 투자해 2009년 9월 개교 목표로 세우고 있는 '킹 압둘라 과학기술대(KAUST)'이다. 세계적인 교수진, 연구인력과 우수한 학생들을 영입해 '사우디판 MIT(매사추세츠 공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근 스탠퍼드, 버클리, 텍사스대(오스틴) 등 미국 명문대 세 곳이 사우디 정부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이를 지원키로 했다. 5년간 커리큘럼을 만들어 주고, 최우수 교수진 영입을 돕고, 공동연구를 하는 대가로 대학마다 2500만 달러(약 239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는다. 이 밖에도 우수한 미국 대학들이 중동으로 진출하고 있다. 뉴욕대는 5,000만 달러(약 479억 원)의 기부금을 받는 대가로 2010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분교를 연다.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는 코넬대(의대), 조지타운대(국제정치학), 카네기멜런대(컴퓨터공학 및 경영)가 분교를 설치

했으며, 올 가을에는 미시간 주립대와 로체스터공대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강의를 시작한다. 대학들에겐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중동 국가들은 수준 높은 고등교육을 제공받는 '윈-윈 제휴'다. 여기에 일본 대학들이 가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같이 외국 대학들의 국제화는 국경을 넘어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대학들의 국제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아직도 '우물안 개구리'는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때다.

필 · 자 · 소 · 개

오대영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교육담당 기자와 도쿄 특파원, 교육담당 논설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중앙일보 국제부장으로 재직 중이다.